

완도군, 케이블카 조성 논란 불보듯

지역민·환경단체 “국내 최대 난대림연계 코스 환경 훼손” 우려 군수공약 사업 불구 노선·수익성 등 공론화 과정 미흡

완도군이 완도수목원과 장보고 유적지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 케이블카 조성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내 최대·유일의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을 연계하는 코스로 알려지면서 환경 훼손에 대한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가 완도수목원을 중심으로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응하면서 난·아열대 식물을 연구하는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을 진행중이라는 점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지난 16일 오후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광주·전남지역 건설사·구조물 설치

업체, 지역 언론사가 참여했다.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신우철 완도군수의 선거 공약 사업으로, 신 군수는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산림과 해양을 아우르는 해양관광거점도시 육성’을 내걸고 1000억원을 들여 ‘다도해 해상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완도군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 군외면 대문리-완도수목원 인근 상왕산 상왕봉(644m) 구간을 산악열차 형태로, 상왕봉-장좌리 장보고 유적지까지는 케이블카로 3.6km를 잇겠다는 구상이다.

완도 상왕봉은 난대림 집단 자생지인 완도 수목원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도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포인트다. 전체 사업비는 750억원으로 예상됐다.

완도군은 애초 완도읍 완도타워-신지면 명사십

리 간 구간을 검토해오다 해당 구간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간에 포함되면서 케이블카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해 완도수목원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완도수목원의 경우 국내 유일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로, 최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칫 케이블카 운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공사 과정에서 난대림 자생지에 대한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군수 공약 사업임에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노선·수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둘러 추진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면서 개발과 환경 훼손을 둘러싼 대립·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전남에서는 현재 여수·목포·해남·울돌목 케이블카가 운영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채취본부장 ejhung@

목포·무안 이웃에 700만원 상당 여성위생용품 기부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이 목포와 무안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여성위생용품을 기부했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18일 전남여성가족재단을 찾아 700만원 상당의 ‘여성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과 현대삼호중공업 한정동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여성위생용품

을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추천한 목포와 무안 지역 여성보호시설 7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여성위생용품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올 들어 전남 서남권 취약계층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지원과 3000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보양식 꾸러미 전달 등 사랑과 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 한정동 전무 등이 18일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을 찾아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써달라며 700만원 상당의 여성위생용품을 전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해남군 “귀농귀촌, 살아보며 준비하세요”

체류형지원센터 개소 영농교육·농촌체험 제공

해남에 체류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해남군은 계곡면 귀농귀촌 희망센터 내에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최근 개소식(사진)을 가졌다.

체류형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정착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교육센터로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농촌생활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이다.

단독주택 12동의 주거공간과 영농체험장, 공동작업장,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군은 기존 귀농귀촌희망센터의 분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체력단련실과 도서실, 동아리방 등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앞으로 6개월간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영농



교육과 함께 다양한 지역 체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해남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입주자들을 축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서 도시민들에게 또다른 기회의 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백련문화센터 준공

무안군이 일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백련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로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읍면소재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365생활SOC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총 사업비 56억원(국비 38억, 지방비 16억, 군비 2억)을 투입해 백련문화센터와 철길공원쉼터를 조성하고 보행로, 도심거리 간판, 외벽 등을 정비하는 등 일로읍 농촌중

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핵심시설인 백련문화센터는 다목적실, 대회의실(영화관) 등으로 구성돼 문화, 복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폐철도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철길공원쉼터는 주민들의 힐링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오랜기간 동안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해주신 주민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촌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읍 5일 조금시장 배송 도우미 서비스 호응

진도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진도읍 5일 조금시장에 배송 도우미 서비스(사진)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진도읍 조금시장을 방문하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시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3명의 배송 도우미가 인근 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까지 구입한 물건을 무료로 운반해 주고 있다.

지난 8월초 시작된 배송 도우미는 시장이 열리는 매일 2일과 7일에 운영하며,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이용 방법은 5일시장 장소 내 배송 도우미 대기 장소와 시장 주변에 부착된 배송 도우미 연락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배송 도우미는 어르신과 교통약자들이 장을 보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전통시장 홍보·안내를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세얼굴

“직원들과 화합...주민 밀착형 치안 구현”

정덕진 영광경찰서장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민 밀착형 치안을 구현하겠습니다.”

최근 제85대 영광경찰서장에 취임한 정덕진 서장은 경찰 본연의 소임대로 ‘기본에 충실한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정 서장은 이어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섬세한 대응, 동료와 국민에 대한 소통과 협력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직원들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서장은 1995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지역경찰운영계장, 경찰청 112 운영계장,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기획계장을 거쳤다. 총경 승진 후 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영광=이종유 기자 jylee@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